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됨으로  
그분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됨**

2/20 월요일

아침의 누림

마 5:44-45, 48

44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45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해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내리십니다.

48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

요 3:6b

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롬 8:4, 16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엡 2:22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

마태복음 5 장 48 절의 주님의 말씀은 헌법의 이 부분(17-48 절), 지극히 높은 이 부분을 끝맺는다. 이 부분의 모든 요구들을 읽고 나면, 우리는 모두 그것들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후에 우리는 48 절에 온다. 이 절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반드시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절은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난 그분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방하거나 흉내낼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는 한 우리는 그분과 똑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천국의 율법의 모든 요구들은 이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지를 계시한다. 우리에게만 다만 자신이 폭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단념하게 할 것이다. ...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버릴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으로 돌이킬 것이며, 신성한 본성과 함께 머물 것이다. 자연히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랄 것이고, 가장 높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필요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우리의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에 의해 살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게 된다.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20 장, 26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나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 나는 지금 내 영 안에서 이 생명에 의해 살고 있으며 이 영을 따라 행하고 있다. 내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는 천국의 율법의 가장 높은 요구들을 이룬다. 이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나의 겸손한

간증이다. 이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실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의 생명으로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같은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소망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철저히 파내어지고 드러난 후에, 우리는 타고난 생명에 소망이 없다는 것과, 타고난 생명에 신뢰를 두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 우리는 쉽게 아버지의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분의 영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로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흉내 내거나 모방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생명을 산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실 처소로 만드심으로(엡 2:22, 헬라어 참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이곳,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거듭난 영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살고 행할 때, 자연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네 자녀를 둔 어떤 형제를 생각해 보자. ... 이 자녀들은 사람을 모방하려고 애쓰는 원숭이네 마리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그들의 아버지의 형상 안으로 자라고 있다. 그들은 자랄수록 더욱더 아버지의 생명을 살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숭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다소 어리고 유치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자라고 있다. 이렇게 어린 사람들은 말썽꾸러기일지 모르지만 자라는 중이다. 수년만 더 기다려 보라. 이 모든 어린 말썽꾸러기들이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결국 그들은 자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20 장, 262-26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20 장; 유티니스 리 전집, 1932-1949 년, 1 권, 영문판, 535-540 쪽

2/21 화요일

### 아침의 누림

벧후 1:3-4

3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요 3:15

15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4:24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갈 3:27

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요일 1:5

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일 4:16

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

우리는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통하여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는 믿음과 침례를 통해 이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들어갔다(요 3:15, 갈 3:27, 마 28:19). 이 신성한 본성의 미덕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곧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 안으로 이끈다.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이며, 신성한 본성은 그 신성한 생명의 실질이다. 우리는 믿을 때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이었지만 신성한 본성은 우리가 끊임없이

누려야 하는 것이다. 이 누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신성한 본성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분의 미덕을 갖게 되고, 더욱더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에 따라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능히 그분의 본성 즉 그분의 어떠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분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 중 하나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이다(고후 12:9).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는 우리가 그분의 본성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작용할 것이다.(신약의 결론,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7 장, 94-95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은 그분의 본성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할 때 신성한 풍성에 동참하게 된다.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성의 어떠함을 누려야 한다.

이 누림은 현재와 영원 모두를 위한 것이다. 영원토록 우리는 계속해서 신성한 본성에 동참할 것이다. 이것은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계 22:1-2)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은 흘러나오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받은 사람들의 누림이 되심을 의미한다. 이 흐르는 강은 새 예루살렘성 전체를 흠뻑 적실 것이며, 그 강 안에서 그리고 그 강을 따라 자라는 생명나무는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들의 생명 공급으로 제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신약에 따르면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4:24), 사랑이시고(요일 4:8, 16), 빛이시다(1:5). ...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키고 묘사한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인격의 본성인 영과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과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인 빛이 포함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함께 그분의 본성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배 아래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그분의 영과 사랑과 빛을 더욱더 갖게 된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분배를 체험해야 한다. 결혼한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견디기 힘든 시간을 준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여러분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러분이 그분의 분배 아래 머물며 그 영을 더 많이 여러분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육체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대신 그 영으로 반응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실 뿐 아니라 사랑이시기도 하므로, 우리가 그분의 분배 아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사랑을 갖게 된다. 사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으로 더 분배될수록 우리는 더 사랑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가질 뿐 아니라 사랑이라는 뜻이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사랑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조성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이 된다.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이 우리 안으로 분배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반응한다. 오직 한 가지 사랑만이 참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분배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분배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인 참사랑으로 반응한다. (신약의 결론,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7 장, 95, 99, 102-10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7 장*

2/22 수요일

### 아침의 누림

창 17:1

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온전하게 되어라.

고후 12:9

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요 15:5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 2:12-13

12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 4:13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히 13:20-21

2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21 온갖 선한 일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 24:16-18

16 여호와와 영광이 시나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육 일 동안 산을 덮었다.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17 여호와와 영광의 모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 같았다.

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사십 일 밤낮을 그 산에 머물렀다.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언급된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칭호의 의미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 칭호는 히브리어로 ‘엘 샷다이’이다. ‘엘’은 ‘강한 분’,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고, ‘샷다이’는 모든 것을 충족해 준다는 의미를 지닌 ‘가슴’ 혹은 ‘유방’을 의미한다. ... 유방은 젖을 내며, 젖은 모든 것을 포함한 공급으로서 이 공급에는 물과 무기질과 여러 비타민이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엘 샷다이’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며 능력 있으신 분’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타고난 자아에 의해 행했을 때, 그의 공급의 근원을 잊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그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며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 이 유방으로 와라. 너의 공급의 근원은 너의 타고난 자아가 아니라 나, 곧 유방을 가진 능력 있는 이이다.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이로서, 너의 생활을 위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다. 내가 근원이다. 너는 근원이 아니다. 너는 자신을 의지하여 자신의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너의 공급의 근원인 나에 의해 살아야 한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47 장, 672-673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17 장 1 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유방의 공급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거룩하신 분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유방을 갖고 계시며 능력이 있으신 분은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분의 공급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하셨다. ...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 그에게 하나님이 부족했음을 뜻한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없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 우리가 자신 안에서 얼마나 온전한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서 여전히 하나님이 부족하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의 가정생활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가정생활은 온전하지 않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온전하지 않다. 하나님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 우리 손에 손가락이 네 개뿐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 손이 좋은 손이라 해도, 엄지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그 손은 온전하지 않을 것이다. ...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지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그분을 누리는 것이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지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 못할 이유나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한가? 하나님께서 능력이시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시다. ... 우리는 가난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은행에 많은 예치금을 가지고 있다.

실지적으로 말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활과 일에서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타고난 자아를 사용하거나 육체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심을 신뢰해야 한다. ... 왜 우리는 어떤 때에 화를 내는가?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공과를 배우게 한다. 그 공과는 바로 결코 매 순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이다. ...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성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성질은 극복될 것이다. 온전하게 되지 않은 모든 것은 한 가지에

기인한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며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마치 전원에서 끊어져 작동하지 않는 전기 기구와 같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자신을 두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47 장, 674-67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47 장;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63 장

## 2/23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요일 2:5

5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 요일 4:12, 17

12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17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 요일 4:18, 9-10

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10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

요한일서 2 장 5 절의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agape)’이다. 이 단어는 ‘필레오(phileo)’보다 더 높고 고귀한 사랑을 가리킨다. ... 이 서신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모두 이 단어와 이 단어의 동사형만이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은 모두 서로 관련이 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신성한 생명의 문제인데, 이 신성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내적인 본질이고, 주님의 말씀은 이 신성한 본질을 우리에게 공급하며, 우리는 이 신성한 본질로 형제들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신성한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사는 신성한 생명을 통해 신성한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15 장, 154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일서 4 장 12 절에서 요한은 또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하나님 자신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지만, 지금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체험이 될 필요가 있다. ... 이 사랑이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될 때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온전하게 된 사랑은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림으로써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다.

요한일서 4 장 12 절에서 ‘온전하게 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텔레이오(teleioo)’이며, 이 헬라어 단어는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 ‘끝내다’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타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화해 제물과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요일 4:9-10).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같이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서로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나타날 때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생활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타나도록 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본질인 사랑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요한일서 4 장 17 절에서 요한은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는 생활을 하셨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일서 4 장 18 절에서 계속해서 요한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의 앞부분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두려움은 사랑 안에 없다.”라고 할 수 있다. ‘두려움’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받게 될 그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벧전 1:17, 히 12:28)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 그분께 받게 될 심판의 두려움을 가리킨다. ‘사랑’은 17 절에 언급된 온전하게 된 사랑, 곧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요일 4:17)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또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그분께 형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눅 12:46-47).

요한일서 4 장 18 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먼저 요한은 요한일서 4 장 12 절과 17 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18 절에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와 신성한 사랑이 연합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되고, 사랑은 우리가 되기 때문이다.(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34 장, 330-331 쪽, 35 장, 337-33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15, 34-35 장

2/24 금요일

### 아침의 누림

고후 13:11, 14

11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형제님들, 기뻐하십시오. 온전해지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엡 1:9-10

9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아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엡 4:11-13

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총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계시를 보아야 한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의 참되고 실지적인 온전하게 됨이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몸의 최종 완결일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온전하게 됨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모든 하나님-사람들의 총체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3 권, 야고보서 결정 연구, 7 장, 113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온전하게 됨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하심에 따라 사람이 되시므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사람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곧 하나님-사람들 안으로 분배되신 결과이며, 이 분배는 근원이시자 기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마 5:48). 아버지의 본성은 새 예루살렘의 근원과 기원인 순금 기반이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온전하게 됨은 또한 아들 하나님을 요소로 하여 이루어진다(고후 13:3, 5, 9, 11).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진주 문들로 예표된다.

영 하나님의 교통의 분배(고후 13:9, 11, 14)는 거듭남, 거룩하게 됨, 새롭게 됨, 변화, 같은 형상을 이룸, 영광스럽게 됨이라는 여섯 단계에 의해 우리 주위에 신성한 생명의 즙을

분비하는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의 셋째이신 그 영은 이러한 여섯 단계에 의해 변화시키는 일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를 완성된 진주로 만드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13 장은 믿는 이들에게 온전하게 되기를 격려하기 위해 쓰였다. 그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또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는 그 영의 교통을 통하여 누림으로써 온전하게 된다. ... 고린도후서 13 장에서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는 것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삼일성의 셋째이신 그 영의 교통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 주위에 삼일 하나님의 생명 요소를 분비하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온전하게 됨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엡 4:12).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되어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와 신언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자 및 교사와 같이 은사 있는 사람들이다(엡 4:11-12).

사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진리를 정의한다. ... 신언자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신언한다(고전 14:3-5). 합당한 신언자는 신성한 말씀을 신언하는데, 이것은 주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말해 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한 일이다(사 9:6). ... 복음 전파자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 전파자는 죄인들을 얻어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도록 한다. 이것은 죄인들이 천당에 가도록 그들의 혼을 얻는 것이 아니다. ... 목자는 어린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자라도록 그들을 먹인다(요 21:15-17, 엠 4:15-16). ... 교사는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믿는 이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그들을 가르친다 (비교 딤후전 3:2, 5:17).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3 권, 야고보서 결정 연구, 7 장, 113-11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3 권, 야고보서 결정 연구, 7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8 장

2/25 토요일

### 아침의 누림

벧후 1:7

7 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벧후 3:11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계 21:18

18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 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계 1:12

12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을 때에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계 3:18

18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제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벧전 1:4

4 곧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유업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

신성한 본성을 누릴 때 우리는 주로 영과 사랑과 빛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이 세 가지가 신성한 본성의 주요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영은 하나님의 인격의 본성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며,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이다.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것은 신성한 영과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빛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영을 만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져온다. 더 고귀하고 더 높은 최고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질 때, 그 결과로 우리는 구별되고 다르게 된다. ... 인간 사회는 죄로 '어둡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똑같다. ...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매일 접촉하면서 교통 안에 머물며 내적인 신성한 운행에 협력할 때, 그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 이러한 내적인 사랑이 그들을 다르게 만든다. 그들은 학교에서, 집에서, 친척들과 동료들과 학교 친구들 가운데서 구별된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32 장, 506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분별과 구별이다. ... 금은 신성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예표한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반대는 '속된'이다. 금은 '금이신 하나님'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바로 분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분별되신 분이시며 분별의 하나님 이시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구분되고 분별되며 구별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신성한 교통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나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것을 누리며, 더 나아가 본질에 있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표현에 있어서 빛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누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꼭 잠길 것이다.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사랑 자체가 될 것이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구별되게 한다. ... 여러분이 주님과 교통 안에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문다면, 이러한 교통 후에 아내와 아이들 모두가 여러분이 달라진 것을 깨달을 것이다. 교통 안에 머문 결과는 바로 여러분이 속되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모든 동료가 깨달을 것이다. 학교에서 여러분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교사들이 깨달을 것이다. 친척들 중에서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며, 그들도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은 거룩하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모든 이들과 다르다는 뜻이다. 여러분은 달라지고 분별되었으며 속되지 않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되시고 분별되신 분이시며, 새 예루살렘은 금으로 된 산, 곧 우주 전체에서 구별된 한 실체이다. 그뿐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교회도 하나의 금등잔대로서 모두 구별되고 다르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서에서 우리는 또한 거룩함 안에 있는 사랑을 본다. 사랑은 신성한 본성의 궁극적인 발전이다(벧후 1:7). 거룩함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생활 방식이다(3:11). 사랑은 거룩함을 가져온다. 여러분이 신성한 본성에 온전히 동참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것은 어떤 생활 방식을 가져올 것이고, 이 생활 방식은 분별되고 구별된 생활로서 여러분을 더 이상 속되지 않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거룩함은 신성한 본성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이러한 생활 방식이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심지어 사랑이 되며 이 사랑은 거룩함을 가져온다. 거룩함은 방식이다. ... 신성한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분별하며 다르게 만든다. 우리는 금인 너무나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진흙덩이가 아니라 금덩이이며,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모든 조각이 함께 두어짐으로써 금등잔대가 되고 '금'이신 예수님의 증거를 나타낸다. 이것이 베드로가 쓴 글의 중심 노선, 중심 사상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32 장, 507-50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신약 경륜, 32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성경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상, 3 장

**2023. 2. 20 ~ 2023. 2. 25**

단체로 읽을 말씀: *The Economy of God and the Mystery of the Transmission of the Divine Trinity*, 12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34-35장

2/26 주일

### 아침의 누림

요일 4:11-19

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13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14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지금 또 증언합니다.

15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17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찬송: 13 (英) 하나님은 사랑 또 빛 (中:6)

1 하나님은 사랑과 빛 아들의 생명이라 사랑과 빛 표현되어 우리 생명 얻었네

(후렴)

사랑과 빛이요 아들의 생명이라 사랑과 빛 표현되어 우리 생명 얻었네.

2 주 어떠함 나타내는 사랑은 안에 있네 주의 일을 나타내는 빛은 밖에 있다네

3 은혜로 나타난 사랑 진리로 비취는 빛 사랑으로 주 누리고 빛으로 주를 아네

4 사랑으로 죽으신 주 우릴 생명 얻게 해 빛으로 깨닫게 하고 보혈 적용케 하네

5 생명 얻게 하는 사랑 주 교통 누리게 해 정결케 하는 빛 우릴 교통 안에 살게 해

6 빛의 비침 피의 씻음 기름 바름 알게 해 주의 성분 주의 생명 우리 안에 흐르네

7 주의 사랑 우리들을 자녀 되게 하셨네 주의 형상 이루도록 빛은 어둠 제하네

(후렴)

이 은혜 이 진리 나타난 사랑 빛 그침 없이 찬양하세 주 알게 한 사랑 빛.